

아는 만큼 보이고 본만큼 감동한다!

7월 16일 토요일, 다가올 무더위를 예고하는 빗줄기가 간간히 흩뿌리는 가운데도 해인사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는다. 일주문을 지나면 봉황문, 불이문이 나타나고, 화엄도량의 면모가 눈앞에 확연히 드러난다.

“이곳이 바로 해인사구나. 그런데 도대체 팔만대장경은 어디 있지?”

해인사를 찾는 탐방객들은 누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부터 찾지 마려. 하지만 불이문을 들어서서도 팔만대장경을 찾을 수가 없다. 도량을 한바퀴 돌고 다시 팔만대장경을 찾아 구광루로 향했다. 구광루 1층, 모든 탐방객들이 멈춰 섰다.

해인사 종합홍보관이다.

할짝 열린 문에는 해인사와 고려팔만대장경 주막 특별안내에 대한 설명판이 있다. 토·일요일 오전 10시, 12시 30분, 오후 2시, 오후 4시에 가야산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이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안내한다. 홍보관에서 자료와 영상물을 보고나면 해인사 최고의 탐방코스가 될 것이라는 소개다.

처음 해인사를 찾는 탐방객들은 종합홍보관에 대한 호기심과 안도감으로 기웃기웃 안으로 들어갔다.

해인사 종합홍보관에 가보니...

해인(海印)의 뜻을 아시나요?

“해인사에서 해인(海印)의 뜻이 뭐예요?”
홍보관에 들어서자마자 양정철(32·합천 야전리)씨가 친구들에게 대뜸 물었다.

“해인은 일렁임이 없는 바다에 만물의 형상이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이 번뇌가 없는 마음에는 만물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화엄경의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비롯된 거예요.”

해인사에 처음 온 안효성(32·서울 서초동)씨의 눈이 커졌다. 해인사에 왔으면 해인의 뜻을 알고 가야 하는데 친구가 어떻게 알았을까? 감탄하는 눈빛이다. 고등학교 때 해인사를 다녀간 적 있는 안효성(31·경남 사천)씨도 처음 듣는 소리다.

머칠전 해인사 홍보관을 다녀갔던 양정철씨가 의외의 웃으며 벽면에 걸린 해인사 안내판을 가리켰다. 눈 덮인 해인사의 절경, 매화꽃이 흐드러진 경화원 등 해인사의 멋진 풍광을 담은 사진과 해인사 창건, 산내입자, 가야산에 대한 안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 저기 원담암에도 한번 가보자.”

효성씨는 해인사 탐방코스를 잡기도 했다.

'장경 보존' 8백년의 비밀이 궁금해요

“팔만대장경을 자작나무로 만들었구나. 정말 이렇게 조각을 했을까?” 홍보관을 둘러보면 양은현(33·경기도 하남)씨가 호기심을 드러냈다.

“물론입니다. 옛 선조들이 짚을 하며 한자한자 새겼습니다. 게다가 한사람이 모두 새긴 것도 아니에요. 모두 각각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새겼는데 끝까지 이렇게 고르다하는 것은 탄복할 일이지요.”

홍보관 안내 도우미 신세정(30)씨가 열려 나왔다. 홍보관에 모인 10여명 탐방객이 모두 흥미있는 눈빛으로 설명에 집중했다.

“팔만대장경이 800여년 동안 썩지 않고 보존이 된 것도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영상실에서 팔만대

장경 보존의 비밀에 대한 8분짜리 DVD를 상영합니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세정씨가 영상실로 안내를 했다.

몇 해전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보고는 별로라고 생각했다는 황미희(37·대구 시지동)씨는 “DVD를 보고 팔만대장경의 진정한 가치를 새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황씨는 오늘 팔만대장경의 진정한 가치를 찬찬히 살펴보고 느껴볼 예정이다. 황씨는 이제야 ‘보물’을 보는 눈을 조금 뜨게 됐다고 기뻐했다.

팔만대장경의 비밀 등 해인사 정보 한눈에 인터넷 검색, DVD 상영 등 탐방객에 인기 '짱' 불교 알림 역할 톡톡...자료·인력 부족은 과제

인터넷 검색, 해인사관련서적 한눈에...

홍보관에 들어서면 한눈에 띄는 것이 컴퓨터다. 비록 3대에 불과하지만 가야산 골짜기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 최철단 정보화사이에 해인사를 찾는 이들을 위한 배려다. 한 예는 해인사 관련 서적을 모두 모아 놓았다.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부터 한글팔만대장경까지 골고루 갖춰져 있고, 해인사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엽서들도 전시돼 있다.

해인사는 종합홍보관을 해인사를 찾는 이들에게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는 물론, 해인사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념품 전시도 생각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쇄문화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팔만대장경이 있는 만큼 인경체험장 등을 두어 인쇄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활용까지도 구상중이다.

올바른 사찰탐방문화 정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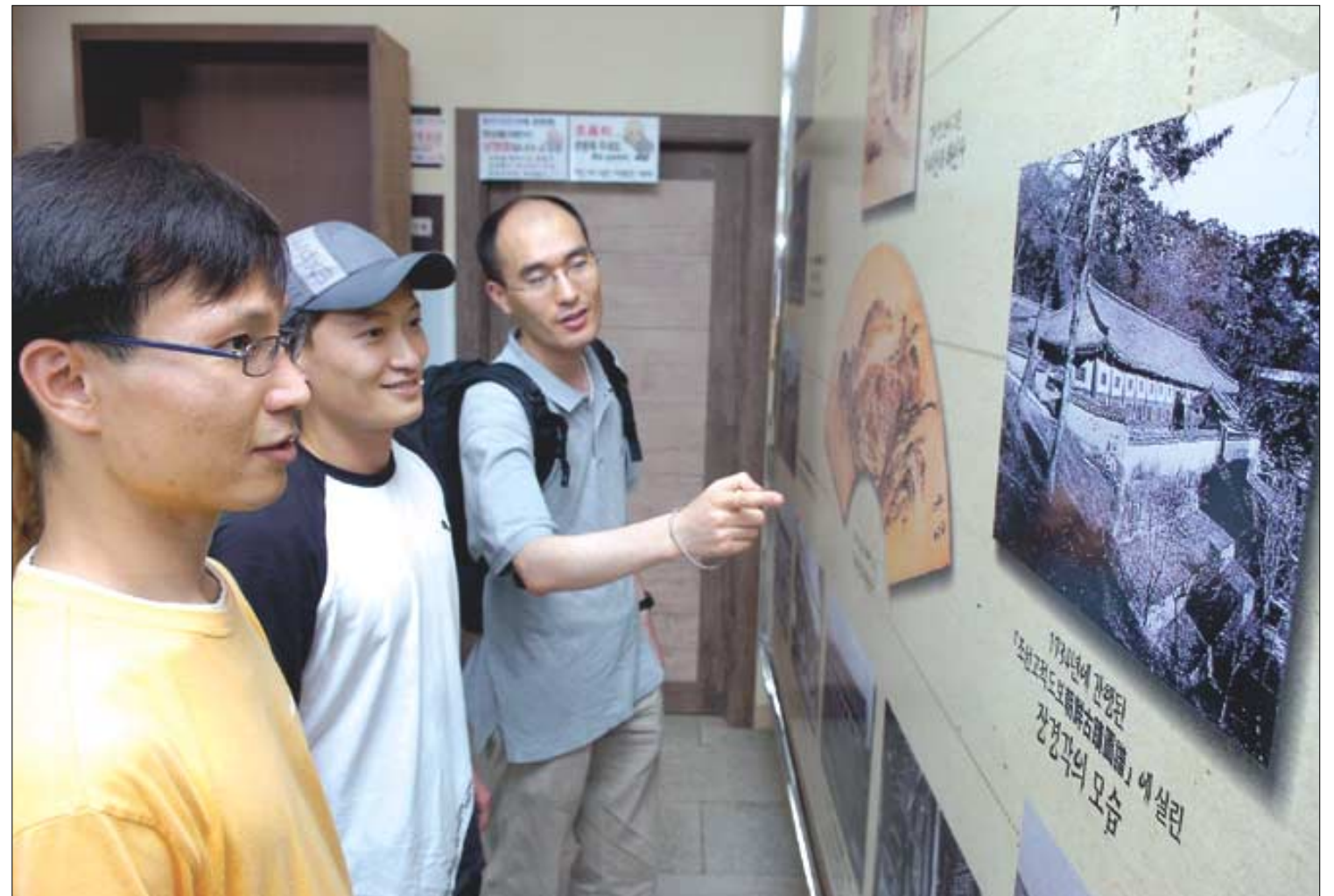
해인사 홍보관은 지난 5월 1일 문을 열었다. 팔만대장경 보존을 위해 5월 1일부터 장경편찬 개방제한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직접 보지 못한 탐방객을 위해 마련한 것. 그러나 해인사 종합홍보관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역

할을 가진다. 올바른 사찰탐방문화를 이끌고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해인사는 한국의 대표 사찰로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불교성지이며 강원 올원 선원 염불원을 갖춘 종합수행도량이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관광사찰’로의 전락 위기를 맞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가꿔온 한국불교 교유의 정신문화를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각해 대두된 것.

해인사는 종합홍보관을 통해 사찰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알리고, 우리교유의 불교문화와 정신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켜 우리의 보물을 스스로 지켜나가게 만들어야한다는 취지다.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규제도 단행할 생각이다.

글/합천=배지선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해인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인사의 옛 모습이 담긴 안내판을 보고 있다.



팔만대장경과 판전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해인사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참배객들.



해인사 종합홍보관이 있는 구광루.

불경, 금책, 금병풍

신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천수경 12매, 반야심경 8매

복상불호소영가
장의식사용용도

금강불교예술회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차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성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의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성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아들미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제 은행성 온열복대는 약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썩뚫음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하고 편안하게 않아야만 있어도 정속의 노폐물 배출, 허벅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氣血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허벅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정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아랫배가 냉한신 분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 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